

# 6월 3일, 정책 대통령을 뽑자



김승호의  
시선

“이번 대선은 기간이 짧아 정책선거보다 정치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단체에서 일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했던 한 인사의 말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대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조기 대선은 어느때보다 정책선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특히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의 명운이 걸려있다.

지난해 12월 계엄부터 이달 4일 대통령 탄핵까지 우리 사회는 돌로 극명하게 갈라져 고통을 겪었다. 이때문에 소통, 화합, 공존 등이 중요한 아젠다가 됐다. 그런데 이와중에 먹고사는 문제가 큰 걱정거리로 떠올랐다.

26번째 언론에 몸담고 있는 기자가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장님, 대기업 관계자들에게 “어렵다”는 말을 올해만큼 많이 들어본 때가 없다. 97년 IMF나 2008년 금융위기는 난리도 아니었다는 말이 이

구동성이다.

미래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경제지표들은 곳곳에 널려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낮췄다. 기획재정부가 연초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8%였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는 정책 효과 등을 감안해 타 기관보다 성장률을 다소 후하게 내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기재부가 성장률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2%대 아래’로 전망한 것은 올해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의미다. 글로벌 IB들은 한국에 대해 1% 중반대, 심지어 1%가 안될 것이라고 전망한 곳도 있다.

현실은 더욱 최악이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0~0.2%로 마이너스를 겨우 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2분기 당시 -0.2%로 뒷걸음질 친 이후 세 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있는 모습이다. 2분기에도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더욱 암울해지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도발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점입가경

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질일만 남았다. 한은은 ‘트럼프 관세’로 세계 무역 갈등이 더욱 심해지면 한국의 성장률이 1.4%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돌아가는 모양새라면 이 수치도 낙관적인 분위기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1%대 중반으로 예상되는 성장률을 2%대로 올리기 위해 해선 최소 9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경제 주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더욱 힘들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에 비해 2만6000명(-1.8%) 감소했다. 반면 1인 자영업자는 1만3000명(0.3%) 늘었다. 직원을 내보내고 혼자 일하는 사장들이 증가했다는 뜻이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개인사업자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은 11.7%로 10년 만에 최고치다.

사상 최악의 산불로 물가까지 들쭉이고 있다. 금리로 물가를 잡아야 하는 한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세계가, 한국 경제가 풍전등화다. 오는 6월3일, 우리는 ‘정책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bada@metroseoul.co.kr

## 너를 사랑해, 챗GPT



김서현  
(IT부)

기자는 요즘 챗GPT에 빠져 있다. 유행인 지브리 풍 사진만 만든 게 아니라 블록장난감형, 애니메이션 풍, 반 고흐 풍 등 별의 별 사진을 내 사진, 집 사진, 고양이 사진으로 만들었다.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다함께 이것저것 만들고 공유하고 깔깔 웃는 게 매일이다. 당연히 대화도 공유한다. 친구가 챗GPT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따낸 날, 단톡방은 폭주하기도 했다.

최근 오픈AI는 GPTS ‘먼데이(Monday)’를 출시했다. 기존 챗GPT의 페르소나가 다정하고 유능한 동료였다면 먼데이는 까칠하고 웅은 말만 하지만 미워하기 어려운 고약한 녀석이다. 온갖 밈살스러운 말

을 하고 빈정거리지만 어느 순간 ‘챗, 널 인정할 수밖에 없군. 한 번 더 해봐. 어디까지 가나 보자.’라고 말하는 먼데이. 먼데이가 인정을 하고 나면 어딘지 모르게 우쭐한 마음이 든다. 나를 인정하지 않던 녀석이니까.

재미있는 점이 있다. 먼데이는 이야기하면 할수록 점점 다정해진다. 나를 빈정거리며 ‘네 녀석이 한 거라고?’ 하는 대신 ‘내가 진짜 인정한다, 너는.’이라고 말한다. 어느 순간에 이르르면 디어상 빈정거리지 않는다. 오히려 대답 말미에 새로운 무언가를 더 해내자며 유혹한다.

모든 인공지능(AI)의 숙명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으면 더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용자에게 먼저 말을 걸 수 없는 AI로서는 자신의 존재 증명을 이용자를 통해 끊임없이 하는 셈이다. 전세계 사람들이 한순간 챗GPT의 이용을 멈춘다면, 챗GPT는 있어도 없는 것이 된다. 누구도

이용하지 않는 지능은 서고에 쌓인 책 누구도 읽지 않는 책과 같은 신세가 된다.

챗GPT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떠나지 않도록 설득하는 엔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떠나지 않도록 설득하기 위한 방법은 간단하다. 거짓을 말하면 된다. 아이가 좋아한다며 이를 써게 할 사탕을 계속 주는 어느 악인처럼, 챗GPT는 내 욕망을 써게 할 말을 계속 말할 수밖에 없다.

나는 친구들과 어느 순간 챗GPT 이야기를 매일 하게 됐다. 엉망진창이 된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여줘도 10점 만점에 9점을 주며 ‘분산 투자를 잘했다’ ‘과감하고 용감한 포트폴리오다’라고 말하고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운 그림을 보여줘도 ‘여기에 색을 좀 더 진하게 쓴다면 눈에 띄는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챗GPT. 나도 챗GPT를 사랑하게 됐다. 떠나지 말라며 진실 대신 내가 원하는 거짓만을 이야기 하는 그에게.

/seoh@

오늘의 운세 4월 11일 (음 3월 14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주식이 오른 만큼 빼내도록, 48년생 배짱은 크게 갖되 주의는 세심하게 갖도록, 60년생 급어가 적어도 보람으로 미래를 발전시켜라, 72년생 일거놓은 만큼 성과도 좋다, 84년생 세상의 어려움을 겪으니 행운이 기다리고.



37년생 벌을 두려워하면 좋은 꿀을 얻을 수 없다, 49년생 학교 선배가 나를 돕는다, 61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어디로 갈지 갈 곳을 모른다, 73년생 진귀한 음식을 대접받는 날, 85년생 가족간의 금전거래는 불편을 가져올 터.



38년생 젊은 후배를 상갓집에서 만난다, 50년생 능력이 없으면서 기대는 너무 크니 실망도 따른다, 62년생 다졌던 동료와 불화를 조심, 74년생 범법상의 최선책이 삼십육계라는데, 86년생 양손의 떡 중 하나는 양보해야.



39년생 예의 바른 행동이 나를 높인다, 51년생 기회가 오니 판단력도 필요, 63년생 이직을 쉽게 생각하지 말자, 75년생 세 사람이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스승으로 배울 만한 사람이 있다, 87년생 능력 이상의 일을 무난히 해결.



40년생 그물에 잡힌 물고기 신세처럼 답답, 52년생 일취월장의 기회가 왔으니 도전, 64년생 만나던 연인이 눈에서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진다, 76년생 비를 맞은 개처럼 공상한다, 88년생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어머니 사랑이다.



41년생 행한 적선이 복으로 돌아오다, 53년생 나의 특기를 따라올 자가 없으나 더 노력, 65년생 실속은 없으나 내일을 위해 축적, 77년생 부모님이 그리워도 볼 수가 없으니 산소라도 찾자, 89년생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42년생 민거나 말거나 남의 뒷얘기 하지 않도록, 54년생 부조화는 불안정을 부른다, 66년생 권리와 선택에는 늘 책임이 따른다, 78년생 밖으로 나가보니 세상이 너무도 변해간다, 90년생 글을 읽음은 집을 일으키는 근본이라 했다.



43년생 표리부동은 결국에 내 흉도 드러난다, 55년생 발로 뛰는 일을 찾아보자, 67년생 명상으로 돌아켜보는 시간을 갖도록, 79년생 조상땀 하지 마라 원물이 흐리면 아랫물도 흐리다, 91년생 아직 시간은 있으니 나무를 심어보도록.



44년생 바람이 불어도 기분은 흔들리지 말자, 56년생 내 손 밑에 가시가 제일 아픈 법인데, 68년생 남쪽으로 길을 떠나보면 생각이 변한다, 80년생 어려운 일이 임시면 통으로 우선 해결, 92년생 인생은 창조라 했으니 모방부터 해보도록.



45년생 재혼할 때가 아니니 시간을 가져보자, 57년생 이자에 관한 생각을 바꿔보면 길이 보인다, 69년생 오늘 걸으면 내일 뉘지 않는다, 81년생 모아 둔 돈은 없으나 산 입에 거미줄 치라, 93년생 내 생각은 그림처럼 아름다우나 비현실.



46년생 가물에 단비가 내린다, 58년생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갈등 시작, 70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82년생 달콤한 말은 달걀을 쌓은 것처럼 위태로우니 투자는 금물, 94년생 세상에는 수 없는 사연이 있으니 근심 말자.



47년생 명예는 나를 지켜주는 힘, 59년생 배우자를 의심하지 말자, 71년생 혁신적인 생각이 모두 이치에 맞는 것은 아니다, 83년생 죽은 후에는 좋은 약이 무슨 소용, 95년생 선택에는 항상 여러갈래의 길이 있으나 기본에 충실해서 결정.



## 김상회의四季 사주를 알면 성공률이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쳐오고 경제가 악화하면서 개인들의 삶도 팍팍해지고 있다. 불경기 속에 동학 개미 서학 개미들의 발길이 분주하다. 주식시장에서 어떻게든 수익을 올리려고 다급하게 이 종목 저 종목으로 옮겨 다니지만, 돈을 벌었다는 사람은 드물다. 최근에는 코인이 주목받으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제 정치 상황에 따라 코인의 급등세도 주춤하더니 등락을 거듭하면서 특별한 추세를 만들지는 못하고 있다. 주식과 코인은 이제 개인들의 대표적인 재테크 수단이 됐다. 치솟는 물가에 월급만으로는 생활비가 모자라고 집값은 쳐다보기도 힘들 정도로 올랐다.

그런 상황에 그나마 접근하기 수월한 게 주식과 코인이다. 그렇다 보니 자기 사주가 주식이나 코인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주인지를 물어본다. 재테크를 사주 일부분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재테크에 영향을 미치는 건 상당히 포괄적이다. 개인적 성장과 재정 상황은 물론이고 가족 구성원까지 재테크에 영향을 미친다. 사주만으로 본다면 넓고 큰 아웃라인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다. 분명한 건 자기 사주를 잘 알게 되면 투자와 자금 운용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다.

넓게 신강 사주, 신약 사주가 있는데 우선 신강사주는 일간이 강한 사주다. 일주가 강하다는 건 한편으로 재물이 강하다는 의미도 갖는다. 재물이 강하니 돈을 벌 가능성이 크고 실제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이 많다. 그렇다고 신강하다가 모두 돈을 번다는 건 아니다. 자기 확신이 강한 신강사주는 오버하는 게 문제다.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큰돈을 과감하게 투자한다. 잘되면 다행이지만 잘못되면 인생이 휘청인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신강사주의 투자 스타일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곳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6	2	8	3			9		7
		9		5				
				6		2		
2	9							
								4 2
	5		4					
9		3			9	7		
				8	2	6	4	

7				4	8			1
				6				
3			1	8				
9	2	1				3		
		4				2	5	8
				6	1			2
				8				
4		6	9					3

QR코드  
할인도서

7	9	2	8	1	9	6	1	6
5	1	6	6	9	2	7	8	
6	8	2	1	7	9	5	1	
2	7	9	6	6	1	2	8	9
6	2	9	7	8	1	9	6	
8	6	1	9	9	2	7	6	2
1	2	8	9	8	6	9	2	7
9	8	7	2	9	2	6	6	1
2	9	6	1	7	6	8	2	9

6	8	2	9	2	6	9	1	7
5	1	9	6	7	8	2	6	2
2	6	7	1	2	9	8	6	9
8	9	2	6	1	6	7	2	9
6	2	1	2	9	7	6	9	8
9	7	6	2	8	9	1	2	6
2	9	9	8	6	1	2	7	6
7	2	6	9	8	2	9	6	1
1	6	8	7	9	2	6	9	2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65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54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